

문학작품의 정보확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조윤아** · 이승윤***

1. 들어가는 말
2. 기본텍스트 저본의 선정
3. 정보 확정을 위한 기준
4. 작가 의도 반영의 난제
5. 나오는 말

국문요약

모든 문학연구는 일차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검토 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거나 원전이 심각히 훼손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장편소설의 경우 많은 작품이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 형식으로 발표를 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박경리의 『토지』는 만 25년이라는 긴 연재 기간이 있었고, 9개의 매체를 옮겨 다니며 연재하였고, 연재 완료 이전부터 단행본이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무려 8곳의 출판사에서 단

* 본 연구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토지」의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관련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토지」 정보 출간을 위한 연구팀의 토론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글의 초고는 2013년 8월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중서사학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것이다. 당시 콜로키움에 참여해준 여러 선생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조언으로 이 글은 완성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책임저자,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초빙교수

*** 공동저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단행본들은 연재본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방향과 누락이나 자기 검열 등 부정적인 방향, 즉 상반되는 두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잡한 단행본 출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본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본 확정을 위한 몇 가지 시안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본텍스트로 어떤 판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정본 확정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워보았다. 또한 난제로 손꼽히는 기준의 충돌과 자기 검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 작가가 생존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돌하는 여러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연재, 단행본, 정본, 저본, 기준, 작가 의도, 자기 검열)

1. 들어가는 말

모든 문학연구는 일차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검토 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거나 원전이 심각히 훼손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문학 연구의 경우 고전문학 분과 내에서는 여러 이본에 대한 연구와 정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현대문학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현대시의 경우 원전을 찾아 복원하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¹⁾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

1) 현대시의 경우 주로 원본을 밝히고 거기에 주해를 다는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를 차

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²⁾ 이러한 상황은 문제로 삼을 만한 연구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전비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문학작품이 신문이나 잡지에 먼저 발표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근현대문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장편소설의 경우는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된 다음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순서를 밟는다. 예외적으로 전작장편(全作長篇)으로 발표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야말로 뉴스가 될 만한 예외적인 사안에 속한다.

물론 연재의 과정을 거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될 수도 있다.³⁾ 독자들의 평가를 통해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작품 전체를 놓고 균형과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문이나 잡지에 먼저 글을 발표한 후에 퇴고를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할 경우 완성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조정’의 과정에 개입하는 ‘독자들의 평가’가 때로는 검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토지』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단행본이 재출간될

지한다. 이승원,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 / 홍장학, 『원전연구: 정본 운동 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4. / 박현수, 『이육사 시전집: 원전 주해』, 예옥, 2008. / 박태상, 『원본 김기림 시 전집』, 깊은샘, 2014. / 현대시 비평연구회, 『다시 읽는 백석 시』, 소명출판, 2014 등.

2) 『바로잡은 ‘무정’』의 경우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한 판본비교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철 교주(校註), 『바로 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3.

3) 최유찬, 『채만식 장편소설의 신문·잡지 연재본과 단행본 비교』, 『한국학연구』 제47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39쪽.

경우 상황에 따라 작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 작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때로는 출판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연재소설의 단행본 출간이 언제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원본이나, 이후 작가의 수정본이 원래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훼손되거나 왜곡된 경우라면 그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박경리의 『토지』는 4만 여장의 원고를 잡지와 신문에 연재한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만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재하였고 9곳의 지면⁴⁾을 옮겨 다니며 연재하였기에 단행본 출간은 작품의 보존과 독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무려 8곳의 출판사⁵⁾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면서 그 때마다 상당한 분량의 수정이 가해져 각 출판본마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물의 성격 형상화가 보완되기도 하고 작가의식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출판사가 바뀔 때마다 수정된 부분들이 오류를 바로잡고 작품의 완성도에 기여한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오류를 낳아 의미의 혼란을 키운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작가의 수정 이외에 출판사 등 타자에 의한 수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⁶⁾ 또 어떤

4) 월간 『현대문학』(1부), 『문학사상』(2부), 『주부생활』(3부), 『독서생활』(3부), 『한국문학』(3부), 『마당』(4부), 『경경문화』(4부), 『월간경향』(4부), 그리고 『문화일보』(5부) 등의 지면에 연재되었다.

5) 문학사상사, 지식산업사, 삼성출판사, 영문출판사, 동서문화사, 솔출판사, 나남출판사, 마로니에북스 등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자세한 판본의 상황은 최유찬, 『『토지』 판본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7-84쪽 참조. 각 출판사본의 호명도 이 연구를 따른다.

6) 박경리 『토지』의 경우 2002년 나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각 장의 소재목을 출판사 임의로 변경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부의 경우만 살펴보면, 총 5편 10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3개의 장 제목이 바뀌어 있다. 예를 들면 1부 1편의 18장 제목을 “유혹”에서 “악마의 유혹”으로, 2편 17장의 제목을 “바람인가?”

부분은 작가의 수정인지 외부의 개입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가 고유의 문체적 특성이나 서술 방식의 특성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토지』의 경우는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발견되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단행본 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유찬은 정보 확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⁷⁾ 그리고 정보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판본 비교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보의 의미를 명쾌하게 제시한 김인균에 의하면, “정보이라 함은 … 원본 비평적 방법에 따라 원본을 포함한 여러 이본을 검토하고 교정하여 정한 표준이 될 만한 판본을 말한다.”⁸⁾ 이때 “표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 확정을 시도하는 이들에 의해 결정되곤 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러나 정보는 반드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다면,⁹⁾ 논란의 중심에서 정보 확정을 시도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해당 작품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의 기존 판본 비교 연구를 토대로 정보의 확

에서 “탐욕의 밀회”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꿔 놓았다. 연재 당시에는 제목이 없었던 것을 문학사상사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제목을 붙였으므로, 이와 같은 출판사의 수정을 작가가 용인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학사상사 출판본의 제목은 작가가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최유찬, 앞의 글, 83~84쪽.

8) 김인균, 『『천변풍경』 정보화를 위한 국어학적 고찰』, 『우리말연구』 19집, 우리말학회, 2006, 326쪽.

9) 박진영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단 하나의 정보가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해야만 하는가? 단 하나의 정보이란 유일무이한 원전, 신성하고 배타적인 원판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번역이 그 시대에 걸맞은 번역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야만 하듯이 편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단 하나의 정보으로 갱신되어야만 한다. 나는 그것을 그 시대에 걸맞은 결정판, 그 시대에 걸맞은 비평적 정보이라고 부른다.” 박진영, 『한국근대 문학사 연구와 정보의 복원 출판이라는 과제』, 『인문과학』 94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251~252쪽.

정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후, 그 외 몇 가지 난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토지』의 작품 연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재 발표 후 여러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학작품을 작가와 독자 ·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으로 확정하는 데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2. 기본텍스트 저본(底本)의 선정

원본 비평 이론의 권위자인 프레드슨 바우어즈는 결정판 즉 정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본 또는 사본들 중에서 결정판의 근거가 될 기본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 작품의 원고를 작가가 두 가지로 작성한 경우 기본텍스트를 하나로 한정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 형식으로 발표한 소설이 작가의 수정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연재본도 단행본도 모두 작가가 직접 작성한 것 그대로라면 어느 하나만을 기본텍스트로 한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최유찬은 작가가 연재를 위해 출판사나 신문사에 전달한 최초의 원고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작가의 원고”이므로 정보 확정을 위한 권위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최초의 원고는 현재 5부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권위본이 될 만한 최초의 원고 원본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토지』의 “정보 작업에서 연재본이 차지하는 가치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¹¹⁾

10)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95, 33쪽.

11)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87쪽.

『토지』의 경우 단행본은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개입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토지』의 정본 확정을 위하여 기본텍스트로 삼아야 할 저본은 연재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재본을 저본으로 선정’한다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연재가 중단되거나, 중복 혹은 동시 연재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토지』 1부는 월간 『현대문학』에 1969년 9월부터 1972년 9월까지 72년 7월호를 제외하고 총 36회 연재되었다. 『토지』 1부의 경우 『현대문학』 연재본을 저본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본을 위한 기본텍스트 문제는 해결된다. 4부와 5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토지』 4부는 월간 『마당』에 1981년 9월부터 1982년 7월까지 연재되다가 중단된 후 1년 동안의 휴지기를 거쳐 『정경문화』에서 1983년 7월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한다. 하지만 6개월 만인 1983년 12월호 연재를 끝으로 다시 중단되고 만다. 그리고 무려 3년 8개월 만에 1987년 8월 『월간경향』에 연재를 다시 시작한다. 1981년 9월에 시작한 4부의 연재는 이렇게 해서 1988년 5월이 되어서야 끝나게 된다. 비록 여러 번 중단하고 장시간 지체되었으나 4부는 연재를 완료하였으므로¹²⁾ 그것을 저본으로 선정하면 될 것이다. 『토지』 5부는 처음으로 일간신문 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문화일보』 1992년 9월1일자부터 1994년 8월 30일자까지 총 607회 연재되었다. 5부 역시 연재를 완료하였으므로 연재본을 저본으로 선정하면 된다.

그런데 『토지』 2부의 경우는 연재가 중단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당시 미처 연재를 마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출판되는 특수한 상황

12) 『월간경향』 1988년 5월호에는 본지 사정으로 『토지』 4부 연재가 중단된다고 ‘알림’으로 밝혀 놓았으나, 여기까지 4부가 완료되었고, 이후 연재는 5부로 넘어간다.

에 놓여 있다. 1972년 10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문학사상』에 『토지』 2부가 연재된다. 이때까지 ‘작가의 사정’으로 세 차례의 휴재(休載)가 있었으며, 결국 2부를 완결하지 못한 채 연재는 중단된다. 연재되지 못한 2부의 마지막 부분 4편 17장과 18장, 그리고 5편은 ‘문학사상사’에서 2부가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 실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토지』 2부의 경우 『문학사상』 연재본만을 저본으로 선정한다면 ‘기본텍스트의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결여를 채우기 위해 2부의 4편 17장, 18장과 5편은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 단행본을 저본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연재가 중단되고 단행본으로 완결된 작품이 출간될 경우 저본 선정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 연재본을 저본으로 하고 연재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만 첫 단행본을 저본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첫 단행본만을 저본으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필자는 전자의 경우를 권하고자 한다. 독자에게 처음 공개되는 그 시점의 작품이 어떤 ‘타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이루어진 작가의 창작물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지』 3부의 연재는 좀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개의 잡지에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이 연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박경리 작 대하소설 『토지』 3부 2개 월간지서 동시 연재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토지』 제3부 집필을 시작, 『독서생활』과 『주부생활』 신년호에 똑같이 연재해서 문단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작가의 같은 작품을 2개 잡지가 동시에 연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지난 10년 간 『토지』의 1부는 『현대문학』지에, 2부는 『문학사상』지에 연재했는데 3부 시작은 2부 집필 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 이미 2부까지의 『토지』 전10권은 삼성출판사에 의해 출판됐다. -(하략)¹³⁾

1977년 1월호부터 『독서생활』과 『주부생활』에 동시에 『토지』 3부가 연재될 것이라는 사실이 문단의 화제로 떠오르면서 연재가 시작되기 바로 전 1976년 12월 13일 『경향신문』 문화면에 위와 같은 기사까지 실리게 되었다. 또한 1977년 1월에는 『뿌리 깊은 나무』에 「두 잡지가 함께 신는 『토지』」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서로 작품의 연재를 맡으려고 경쟁한 두 잡지사가 협의에 의해 동시연재를 결정했다”¹⁴⁾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제를 뿌리면서 동시에 연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독서생활』 측은 돌연 연재를 중단한다. 1977년 6월호 『토지』가 실려 있는 지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독서생활』 편집부 이름으로 연재를 중단하게 된 사실과 중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다. “지난 4월호 혁신호부터 본지의 분량을 줄인 뒤로” 『토지』의 “200매 게재가 무리하므로” 연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독서생활』은 1977년 4월호부터 ‘혁신호’라는 기치 아래 ‘가로쓰기’¹⁵⁾를 단행하고 총면수를 줄여서 발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5월호에는 『토지』를 80매 정도의 적은 분량만 실고 있다. 그렇다면 『주부생활』에서 지속적으로 200매 안팎의 분량을 실을 경우 『독서생활』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이후에 다시 반복하여 신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연재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독서생활』은

13) 『경향신문』, 1976. 12. 13. 5면.

14) 『뿌리 깊은 나무』, 1977. 1. 16쪽.

15) 『토지』 1, 2, 3부의 연재는 『독서생활』 4, 5, 6월호에 실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로쓰기로 게재되었다.

16) 『경향신문』 1979년 12월 19일자 기사 중 「출판계 소식·박경리 소설 『토지』 2개사 판매 경쟁」에서는 『독서생활』에 연재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잡지의 폐간’으로 적고

5월호에 미처 신지 못했던 나머지 100매 가량의 분량—『주부생활』에서 이미 5월호에 발표된 내용—을 6월호에 마저 게재한 후 『한국문학』에게 그 바통을 넘겨준다.¹⁷⁾ 『한국문학』은 1977년 6월호부터 『토지』 연재를 시작하면서 『주부생활』과 동일한 내용의 같은 분량을 신는다. 이 때문에 1977년 6월에는 3개의 잡지에 『토지』가 연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문학』은 어렵게 『토지』 연재를 시작했지만 총 8회를 신는 것에 그치고 만다. 1978년 2월 『한국문학』은 『편집후기』에서 “박경리 씨의 연재 『토지』가 필자의 사정으로 한 호 휴재한다.”고 밝혀 놓았다. 동년 동월 『주부생활』에서도 『토지』는 실리지 못했다. 하지만 『주부생활』은 다음 달인 3월부터 연재를 다시 시작하여 1979년 12월까지 총 31회로 연재를 끝낸다. 이와는 달리 『한국문학』은 이후에도 계속 『토지』를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를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토지』 3부 연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부생활』	『독서생활』	『한국문학』
1977. 1	1편-1, 2, 3장	『주부생활』과 동일	
1977. 2	1편-4, 5, 6장	『주부생활』과 동일	
1977. 3	1편-7, 8, 9장	『주부생활』과 동일	
1977. 4	1편-10, 11장	『주부생활』과 동일	
1977. 5	1편-12, 13장, 14일부	1편-12장	
1977. 6	1편-속14, 15, 16장, 17일부	1편-13장, 14일부 (총 6회 연재)	『주부생활』과 동일

있으나, 『독서생활』은 『토지』 연재중단 이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 발행되었다.
17) 『토지』 2부 연재와 1, 2부 단행본 출판을 맡았던 삼성출판사는 자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독서생활』에 3부 연재를 시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재를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3부 연재가 끝남과 동시에 단행본 출판을 맡는다.

1977. 7	1편-속17, 18장 2편-1장, 2일부		『주부생활』과 동일
...	연재 계속		『주부생활』과 동일
1978. 1	2편-속14, 15, 16장		『주부생활』과 동일 (총 8회 연재)
1978. 2	휴간		휴간(사실상 연재중단)
1978. 3	3편-1, 2장, 3일부		
...	연재 계속		
1979.12	5편-속18, 19, 20, 21장(끝)		

[표] 월간지별 『토지』 3부 연재 상황

1977년 6월 『한국문학』과 『주부생활』에 동시에 실린 두 원고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홍이가 진주의 협성학교에 다녔다는 내용이 실린 위치를 비교해보면 『주부생활』은 후반에 『한국문학』은 전반에 놓여 있음이 눈에 띈다. 용정촌 관련 내용은 무려 900여 자, 20줄이 넘는 많은 분량인데 뒤에 있던 내용이 앞으로 옮겨져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주부생활』에는 없었던 “아무튼 짧은 기간이지만 홍이는 석이에게 배우긴 배운 것”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한국문학』에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문학』의 내용들은 대부분 삼성출판사 단행본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와 같이 『토지』 3부의 연재상황은 복잡한 상태인데, 『독서생활』과 『한국문학』을 기본텍스트로 선정할 경우 상당량의 결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3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재한 『주부생활』의 연재본을 저본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동한 단락이나 추가 혹은 삭제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후 정본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토지』 2부와 3부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연재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품 전체가 다 연재되지 않았다면 연재본만을 저본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 기본텍스트의 결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연재본을 완성

된 작품으로 보지 않고 단행본만을 저본으로 삼을 것인지, 연재본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연재되지 못한 부분만 단행본의 것을 저본으로 선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정보를 확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 확정을 위한 기준

정보 확정을 위해서는 저본을 선정한 다음 이본들과의 면밀한 대조 조사를 통해 저본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데, 그 수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법은 현재의 표기법을 따르도록 한다. 단, 현재의 맞춤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외래어표기법 등은 현대 독자의 가독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처럼 등장인물의 사투리 대화가 많고 작가 고유의 문체적 특성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보 확정 당시의 맞춤법 표기로 일괄 적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 작가 고유의 독특한 의성어, 의태어 표현은 맞춤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대로 살려두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박경리는 등장인물이 침을 삼키는 장면에서 ‘굴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의 단행본인 문학사상사본에서부터 이 표현은 사라진다. 연재 당시 쓰였던 표현이 단행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의성어 ‘꿀각’으로 바뀐 것이다.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 작가의 개성 있는 감각적인 표현을 살려 쓴다고 해서 독자의 독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표준어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 일괄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수정하는 것은 보다 풍부한 국어 표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법 등은 현재의 표기법을 따르되 독자의 작품 이해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는 작가의 개성 있는 표현을 살려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a. 의성어의 예

- 연재본: 봉기는 침을 굴각 삼킨다.(『주부생활』 1977. 1)
- 단행본: 봉기는 침을 꼴각 삼킨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3부 1편 3장)
- ▶ **정본**: 봉기는 침을 굴각 삼킨다.

b. 의태어의 예

- 연재본: 월선이 돌아왔을 적에 수줍고 염치 바르고 도덕심이 굳었던 삼십의 사나이는 그러나 보승보승 핀 노랑 꽃이파리에 나풀거리던 나비는 될 수 없었다. 별정계 단 무쇠를 잡듯이 그 아픔은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현대문학』 1972. 3)
- 단행본: 월선이 돌아왔을 적에 수줍고 염치 바르고 도덕심이 굳었던 삼십의 사나이는 그러나 보승보승 핀 노랑 꽃이파리에 나풀거리던 나비는 될 수 없었다. 별정계 단 무쇠를 잡듯이 그 아픔은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1부 5편 2장)
- ▶ **정본**: 월선이 돌아왔을 적에 수줍고 염치 바르고 도덕심이 굳었던 삼십의 사나이는 그러나 보승보승 핀 노랑 꽃이파리에 나풀거리던 나비는 될 수 없었다. 별정계 단 무쇠를 잡듯이 그 아픔은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굴각’이나 ‘보승보승’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양성모음에 경음을 쓴 ‘꼴각’보다 ‘굴각’이 더 안으로 삭힌 듯한 묵직

한 소리여서 남성 노인인 ‘붕기’가 몹시 긴장하여 간신히 침을 넘기는 소리로 더 적절해 보인다. ‘보승보승’도 작가가 맥락에 적절하다고 여겨 선택한 개성있는 어휘이다. 작가는 사전을 들춰보며 의성어나 의태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감각으로 맥락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쓴다. 따라서 정본을 확정할 때에는 독자들의 이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작가가 선택한 어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3) 저본에서 명백한 오류인 오타자가 발견되었을 때, 혹은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 판본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등장인물의 이름표기를 예로 들 수 있다. 『토지』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연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작가의 실수로 등장인물의 이름표기에 간혹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단행본에서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거꾸로 연재본에서 옳았던 이름이 단행본에서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재본과 여러 판본들 간에 이름표기에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맥락을 잘 살펴 최선의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연재본과 단행본에서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으나 그것이 속담 표기와 같은 명백한 오류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본에서는 올바른 표기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a. 단순 오자, 혹은 맥락상 오류: 등장인물 이름 혼동의 예

a-1. 연재본 오류

- 연재본: 조막손이 손가, 손두지가 말했다. (『주부생활』 1977. 6)
- 단행본: 조막손이 손가, 손지두(孫智斗)가 말했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3부 1편 17장)
- ▶ **정본**: 조막손이 손가, 손지두가 말했다.

연재본에서는 ‘손두지’와 ‘손지두’가 혼재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단행본에서는 ‘손지두’로 쓰고 있어 작가가 ‘손지두’로 쓰고자 한 의도가 명확하므로 이것을 정본에 반영한다. 이렇듯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본확정이 용이하다.

a-2. 단행본 오류

- 연재본: “혼사에 와가지고, 나도 그날 아랫방에서 판술이랑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지.”(『주부생활』 1977. 3)
- 지식산업사본: “혼사에 와가지고, 나도 그날 아랫방에서 값쇠랑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지.”(3부 1편 7장)
- 정본: “혼사에 와가지고, 나도 그날 아랫방에서 판술이랑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지.”

연재본과 단행본 가운데 어떤 특정 단행본만 차이를 보이고 그것이 오류로 판단될 때에는 연재본과 나머지 단행본이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정본을 확정한다.

b. 속담 표기 오류의 예: 연재본과 단행본 동시 오류

- 연재본과 단행본: “오죽 답답하면 하는 말이겠나마는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이나 믿어야지.”
(『문화일보』 1994. 2. 28. 솔본, 나남본 5부 4편 6장)
- ▶ 정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위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5부는 솔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단행본을 출간하였는데, 연재본이나 단행본 모두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어서 정본확정 시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다. 판본 간에 차이가 있다면 비교하면서 판단하지만, 항상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정본확정자가 명확하게 오류를 발견해야지만 저본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위의 사

례는 익히 잘 알려진 속담이어서 올바른 표현이 명확하므로 정분확정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연재본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일본어 번역 투 가운데 작가가 단행본 출간 당시 의도적으로 수정하고자 한 부분은 그 의도를 존중하여 수정 후의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토지』 단행본에서 특기할만한 점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사본의 경우 ‘~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거의 다 수정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 투인데, 박경리 문학전집을 처음으로 출간하였던 지식산업사는 이 표현을 대부분 수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후에 출간된 단행본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박경리는 일제 치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 간혹 서툰 우리말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민감하게 여겼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번역 투를 올바른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여 수정 후의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연재본: 영선이에게 있어서
- 지식산업사본: 영선이에게
- ▶ **정분**: 영선이에게

(5) 연재본에 실려 있었으나 이후 단행본에서 누락된 문장은 되살려 놓는다. 모든 단행본에 누락된 문장이 연재본에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연재본과 몇 개의 단행본에서 발견된 문장이 다른 몇 개의 단행본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a. 연재본에만 문장이 실려 있는 경우

- 연재본: 기복과 구원의 소망이 어찌 인간만의 것이라. 생과 사가 어찌 인간만의 것이라. 억조창생이 어찌 인간만을 이름이라. 무릇 모든 생명은 억조창생 중에 자리한다.(『정경문화』 1983. 8)

- 단행본: 기복과 구원의 소망이 어찌 인간만의 것이라. 억조창생이 어찌 인간만을 이름이라. 무릇 모든 생명은 억조창생 중에 자리한다.(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4부 2편 9장)¹⁸⁾
- ▶ 정본: 기복과 구원의 소망이 어찌 인간만의 것이라. 생과 사가 어찌 인간만의 것이라. 억조창생이 어찌 인간만을 이름이라. 무릇 모든 생명은 억조창생 중에 자리한다.

b. 연재본과 몇 개의 단행본에만 문장이 실려 있는 경우

b-1. 서술의 경우

- 연재본,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남정네와 아낙, 강쇠가 가까이 갔을 때 등을 보이고 있던 두 사람은 화다닥 일어섰다. 남녀는 중년이었고, 개울의 돌들을 뒤집어가며 가재를 잡고 있던 어린 사내아이와 열네댓으로 보이는 계집아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강쇠를 올려다본다.(『주부생활』 1979. 4. 단행본 3부 4편 14장)
- 삼성출판사본, 솔출판사본, 나남출판사본: 남정네와 아낙, 강쇠가 가까이 갔을 때 등을 보이고 있던 어린 사내아이와 열네댓으로 보이는 계집아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강쇠를 올려다본다.(3부 4편 14장)
- ▶ 정본: 남정네와 아낙, 강쇠가 가까이 갔을 때 등을 보이고 있던 두 사람은 화다닥 일어섰다. 남녀는 중년이었고, 개울의 돌들을 뒤집어가며 가재를 잡고 있던 어린 사내아이와 열네댓으로 보이는 계집아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강쇠를 올려다본다.

b-2. 대화의 경우

- 연재본,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뺨 세 차례로 끝나지 않을걸? 죽어서 이별하는 거야 인력으론 아니되는 일이지만 독수공방도 유만부동, 어느 계집이 생과부로 살려던고?”
“누가 형님 행장을 모를까봐서 그러시오? 멀쩡한 양반이 음흉스럽긴,”
소지감은 술잔을 들고 꺄꺄 웃는다.(『주부생활』 1977. 5. 단행본 3부 4편 18장)
- 삼성출판사본, 솔출판사본, 나남출판사본:

18) 문학사상사에서는 3부까지만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뺨 세 차례로 끝나지 않을걸? 죽어서 이별하는 거야 인력으론 아니되는 일이지만 독수공방도 유만부동, 어느 계집이 생과부로 살려던고?” 소지감은 술잔을 들고 꺄꺄꺄 웃는다.(3부 4편 18장)

▶ **정본:** “뺨 세 차례로 끝나지 않을걸? 죽어서 이별하는 거야 인력으론 아니되는 일이지만 독수공방도 유만부동, 어느 계집이 생과부로 살려던고?”

“누가 형님 행장을 모를까봐서 그러시오? 멀쩡한 양반이 음흉스럽긴,” 소지감은 술잔을 들고 꺄꺄꺄 웃는다.

위의 a와 b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연재본에 있었던 문장이 이후 출간된 단행본에서 누락된 경우들이다. 따라서 연재본을 저본으로 확정하였다면 정본확정 시 이 문장들을 삭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저본을 수정할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저본을 그대로 정본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6) 연재본의 명백한 문맥상의 오류를 단행본에서 바로잡은 경우 단행본을 따른다. 연재 당시 등장인물 간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였던 부분을 단행본에서 바로잡아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문장이나 단락을 이동시키면서까지 문맥을 수정하였는데, 이러한 전폭적인 수정은 작가의 의도로 보고 정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연재본:

“엄니, 나도 착한 씨어머니 뿐 좀 봐서, 오늘은 올케 호강 좀 시키줄라요.”

“호강을 시키주어?”

“야.”

“호강이라니?”

“오늘 기성이네하고 장에 가서 옷도 한 벌 끊어주고 또오,”

“또오,”

딸의 눈치를 힐끗 살핀다.
“기성 애비보고 구경도 좀 시키돌라 카고,”
“머라꼬?”
금세 난처해지는 얼굴이다. 선이도 결눈질로 어미 기색을 훑쳐보며 웃음을 참는다.
“서울네 집에 가서 저녁 한 상 자알 차리내라고 호령도 하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라믄요?”
“.....”
“가만히 본께로 두만이가 나쁜 기이 아니라 어무이 아버지도 잘못하요.”
“야가 머라 카노?”
“기성네가 없인께 하는 말이요만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보더라고 서울네한테 가서 더러 찍자도 불고,”
선이는 또 결눈질을 한다. 두만네는 쓴 것을 깨문 얼굴이다.
“그, 그거는,”
“와요? 그라믄 안 돼요?”
“그거는,”
“말짱 알고 본께 업니도 이불 밑에서 활갯짓이구마는, 입으로만 며누리, 며누리 해쌓아도 속으로는 아들 생각을 더 하는가 배요.”
“아 그러씨, 본집인데 당당하게 와 못할 기요. 그렇기 며누리 때문에 간이 아프른 충동질을 해서,”
“듣기 싫다!”
“안 그렇십디까? 아이 적에, 와 그 강청택 말입니다. 아이도 못 놓은 주제에 밤낮 없이 쫓아댕기면서 부수고 퍼붓고 한께 무당집 월선이도 할 수 없이 달아나부리지 않십디까?”
두만네 눈에 겁이 더럭 실린다.(『주부생활』 1977. 5.)

● 단행본:

“엄니, 나도 착한 씨어무니 뿐 좀 봐서, 오늘은 올케 호강 좀 시키줄라요.”
“호강을 시키주어?”
“야.”
“호강이라니?”
“오늘 기성이네하고 장에 가서 옷도 한 벌 끊어주고 또오,”

“또오,”
딸의 눈치를 힐끗 살핀다.
“기성 애비보고 구경도 좀 시키둘라 카고,”
“머라꼬?”
금세 난처해지는 얼굴이다. 선이도 결눈질로 어미 기색을 훑쳐보며 웃음을 참는다.
“서울네 집에 가서 저녁 한 상 자알 차리내라고 호령도 하고,”
“그, 그거는,”
“와요? 그러믄 안 돼요?”
“그거는”
“말짱 알고 본께 업니도 이불 밑에서 활갯짓이구마는. 입으로만 며누리, 며누리 해쌓아도 속으로는 이들 생각을 더 하는가 배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믄요?”
“.....”
“가만히 본께로 두만이가 나쁜 기이 아니라 어무이 아버지도 잘못하요.”
“야가 머라 카노?”
“기성네가 없인께 하는 말이요만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보더라고 서울네한테 가서 더러 짹짹도 불고,”
선이는 또 결눈질을 한다. 두만네는 쓴 것을 깨문 얼굴이다.
“아 그러씨, 본집인데 당당하게 와 못할 기요. 그렇기 며누리 때문에 간이 아프믄 충동질을 해서,”
“듣기 싫다!”
“안 그렇십디까? 아이 적에, 와 그 강청댁 말입니다. 아이도 못 놓은 주제에 밤낮 없이 쫓아댕기믄서 부수고 퍼붓고 한께 무당집 월선이도 할 수 없이 달 아나부리지 않십디까?”
두만네 눈에 겁이 더럭 실린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3부 1편 13장)
▶ **정본** ※ 단행본의 수정을 반영한다.

(7) 연재본에는 없었던 문장이 단행본에 실려 있을 경우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이라면 단행본을 따르도록 한다. 단, 작가의 수정이 아니라 출

판사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토지』 1부 1편의 서(序)는 문학사상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전폭적인 수정을 가하였으며, 또 4부 1편의 서(序)는 연재 당시 1장 앞부분에 속하였던 것을 삼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서(序)’로 구분하여 장을 분리하고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였다.¹⁹⁾ 한 작품에 ‘서(序)’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인데,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서’를 만들고 전면 수정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수정은 정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해도 분명 그것이 작가의 수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본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a. 작가의 수정:

a-1: 1부와 4부 ‘서(序)’의 경우

• 연재본:

一八五七년의 가을²⁰⁾

삼작 밖에 와서 까치들이 아침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옷을 차려입고 떡조각을 입에문 아이들은 마을길을 쏘다니며 좋아서 날뛰었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기울어질 무렵이라야, 제사 모시고 성묘하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보면 한나절이 넘는다.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추석명절을 위한 놀이에 들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남정네

19) 삼성출판사에서는 1982년에 1부에서 3부까지 전9권으로 출판하였고, 이후 1988년 4월에 양장본으로 1부에서 4부까지 전12권으로 다시 출간하였다. 당시 지식산업사에서도 1979년 3부 연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1부에서 3부까지 전9권 세로쓰기로 출판하였다가, 1988년 12월에 개정판으로 4부까지 전12권 가로쓰기로 출간하였다. 이때 지식산업사에서는 각 장의 소재목을 달지 않은 채 일련번호를 붙이고 4부의 서(序)를 따로 두지 않았다가, 개정판에서부터 삼성출판사와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20) 다음 회인 『현대문학』 1969년 10월호 연재분 말미에 ‘前回 序章첫머리〈一八五七년〉은 〈一八九七〉의 잘못임’이라는 수정공지가 있다.

나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차비는 다소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식구들 시중에 집안 뒤치다꺼리, 게다가 제자신의 치장도 있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도, 마음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이는 것이다. (『현대문학』 1969. 9)

• 문학사상사본: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 옷에 땀기꼬리를 늘인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이래야, 제사를 모셔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남정네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차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서둘러 식구들 시중에 음식 간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 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 **정본:** ※ 문학사상사본을 따른다.

a-2: 한 문장이 추가된 경우

• 연재본:

갑자기 흥이는 외치듯 그리고 장이를 안아 일으킨다.

“내가 잘못했다. 이자는 이자는, 다시 안 그러께.”

껴안는다. 머리를 부벼대며,

“안 그러께.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자. 너도 내가 좋은게 따라온 거 아니냐. 자 이자는 고만 울고,”

하다가, 흥이는 장이를 일으켜 세운다.

“여기서 이러구 있음 너 정말로 니 아버지한테 야단맞일 기다. 니가 보고 싶어도 내 꼭 참고 … 두고두고 의논하자.”

장이는 아버지한테 야단맞는다는 말에 정신이 든 모양이다.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흥이 손을 뿌리치며 달아난다. (『주부생활』 1977. 2)

• 단행본:

갑자기 흥이는 외치듯 그리고 장이를 안아 일으킨다.

“내가 잘못했다. 이자는 이자는, 다시 안 그러께.”

껴안는다. 머리를 부벼대며

“안 그러께.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자. 너도 내가 좋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냐. 자 이제는 고만 울고,”

하다가,

“여기서 이러구 있음 너 정말로 너 아버지한테 야단맞일 게야. 니가 보고 싶어도 꼭 참고 … 두고두고 의논하자.”

장이는 아버지한테 야단맞는다는 말에 정신이 든 모양이다.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흥이 손을 뿌리치며 달아난다.

별빛이 쏟아지는데, 총총한 별빛 때문에 사방은 희미한데 흥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3부 1편 5장)

- ▶ **정본** ※ 위의 밑줄 친 문장은 바로 그 장의 소제목 “별빛이 쏟아지는데²¹⁾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단행본 출간 시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장을 추가하도록 한다.

b. 출판사의 수정: 편과 장 소제목의 경우

- 1부~3부: 연재본은 부, 편, 장에 일련번호만 붙여놓았는데 최초의 단행본 문학사상사본에서 처음으로 편과 장의 소제목을 붙인 이후 모든 단행본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문학사상사가 단행본을 출간한 1부에서 3부까지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한다. 최초의 단행본 출간 시 작가가 소제목을 달았으므로 작가의 적극적인 수정 의도를 존중하여 정본확정에 이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4부: 삼성출판사는 4부까지만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는데, 3부까지는 문학사상사의 제목을 따라 붙였으며 4부는 연재본에 없는 소제목을 새롭게 달았다. 그리고 이후에 출간한 솔출판사도 삼성출판사의 제목을 따르고 있다. 4부는 이 소제목을 따르도록 한다.²²⁾

21) 연재 당시에는 ‘5장’으로만 표기하였다가 문학사상사본에서 “5장 별빛이 쏟아지는데”로 소제목을 붙였다.

- 5부: 『문화일보』 연재 당시 소제목을 붙였으며, 이것을 출판사에서 반영하였다. 5부는 연재 당시 붙여진 소제목을 따르도록 한다.
- 나남출판사: 2002년 총21권으로 출판하면서 앞의 단행본의 소제목을 따르거나 혹은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 수정이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남출판사본의 소제목은 따르지 않도록 한다.

4. 작가 의도 반영의 난제

4-1. 정본 확정 기준의 충돌

앞 장에서 제시한 정본 확정을 위한 기준들을 반영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제안 항목들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바로 앞에 인용한 3부 1편 5장 흥이와 장이의 장면 부분을 보면 ‘(5) 연재본에 실려 있었으나 이후 단행본에서 누락된 문장은 되살려 놓는다.’와 ‘(7) 연재본에는 없었던 문장이 단행본에 실려 있을 경우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이라면 단행본을 따르도록 한다.’ 두 항목을 동시에 정본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 3부 1편 5장(『주부생활』 1977. 2. 연재) 흥이와 장이 장면
갑자기 흥이는 외치듯 그리고 장이를 안아 일으킨다.
“내가 잘못했다. 이자는 이자는, 다시 안 그러께.”
껴안는다. 머리를 부벼대며,
“안 그러께. 우리는 죽어도 함께 죽자. 너도 내가 좋으니까(연재본: 좋은게)
따라온 거 아니냐. 자 이제는(연재본: 이자는) 그만 울고.”

22) 1부에서 4부까지 출간한 판본은 삼성출판사본 이외에 지식산업사본이 있다. 지식산업사본은 3부까지 단행본으로 출간할 당시에는 일련번호만을 붙였으나 이후 개정판으로 4부까지 출간하면서 앞선 단행본의 소제목을 따라 붙였다.

하다가, (연재본에 있는데 누락된 문장: 홍이는 장이를 일으켜 세운다.)

“여기서 이러구 있음 너 정말로 너(연재본: 니) 아버지(연재본: 아버지)한테 야단맞일 계야(연재본: 기다). 니가 보고 싶어도 (연재본: 내) 꼭 참고 … 두고 두고 의논하자.”

장은 아버지한테 야단맞는다는 말에 정신이 든 모양이다.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홍이 손을 뿌리치며 달아난다.

별빛이 쏟아지는데, 총총한 별빛 때문에 사방은 희미한데 홍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단행본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에만 있는 문장)

위와 같이 두 제안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1줄에 “~장이를 안아 일으킨다.”와 6줄 연재본에 있었으므로 추가해야 하는 문장 “홍이는 장이를 일으켜 세운다.”가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문장의 의미가 하나는 엮드려 우는 장이를 안아 일으켜 앉도록 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자리에서 두 발로 일어서게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문장을 추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문장을 넣고, 소제목에 그것을 반영하면서 연재본에 있었던 문장을 누락시킨 것인데,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작가의 수정 의도를 반영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작가의 수정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또 홍이의 대사 중에 연재본에서 사용한 사투리가 표준어로 수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저본으로 선정한 연재본을 따를 것인지 수정한 단행본을 따를 것인지 혼란스럽다. 사투리 표기의 문제는 이 외에도 또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투리 어휘도 한정적이어서 『토지』에 등장하는 모든 사투리를 그것에 의지하여 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전에 등록된 어휘로 사투리 표기를

일괄적으로 바꿀 경우 작가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투리 표기의 개성이 사라져 문체적 특성에 훼손이 가해지기도 한다.

만약 작가가 생존한다면 작가에게 직접 어떤 것을 정본에 넣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여 좋은 결과를 본 사례도 있다. 『토지』의 등장인물 중에 송영선과 김휘의 아들의 이름이 ‘선구’와 ‘선일’ 두 가지로 혼용되어 쓰였다. 5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문화일보』 연재본과 솔본, 나남본까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작가 생존에 문의하여 나남본 이후의 출판은 ‘선일’로 통일하여 쓸 수 있게 되었다. 작품은 작가의 창작물이므로 혼란스러울 경우 어느 것을 정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2. 작가의 자기 검열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또 다른 난제가 발생한다. 작가의 역사의식이나 현실인식 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작가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 검열을 하였다면, 그것을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으로 받아들여 정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검열 이전의 판본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 연재본

그곳이 신민회의 조직체인 만큼 회원 육백 명이 체포된 국내의 소용돌이가 미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장환이 생각한 것보다 사태는 훨씬 심각한 모양이다. 편지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고대하던 신민회의 45만 원 모금운동은 좌절되고 이제는 식량마저 떨어질 지경이니 해산할 도리밖에 길이 없다는 비통한 답신이었던 것이다.

‘정말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구나. 우리의 설 자리가 좁혀져 가는구나.’

장환은 조갈증 같은 것을 느낀다. 느긋하게 뻗쳐볼 수 없는 초조함이 피를 거칠게 한다. (『문학사상』 1972. 10)

• 단행본

그곳이 신민회의 조직체인 만큼 회원 육백 명이 체포된 국내의 소용돌이가 미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장환이 생각한 것보다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한 모양이다.

‘정말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장환은 조갈증 같은 것을 느낀다. 느긋하게 뻗쳐볼 수 없는 초조함이 피를 거칠게 한다.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본, 솔본, 나남본 2부 1편 1장)

위의 인용문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와 고등경찰과장 구니토모 쇼켄(國友尙謙) 등이 꾸민 ‘105인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인물 송장환의 고민을 다룬 장면이다. 그런데 『문학사상』 연재본에서는 신민회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송장환의 고민도 더 심각하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문학사상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삭제된 부분들이 많다. 이 수정은 이후의 단행본들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비록 소설이지만 연재본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을 지나치게 절망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여겨졌는지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독자층을 의식하여 수정한 듯한 부분은 이 외에도 종종 발견된다. 아래의 두 인용문을 비교해보면 『주부생활』 연재본에 실려 있던 문장이 단행본에서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이 대사는 석이가 흥이 앞에서 공부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말인데, 사라진 문장 때문에 대화의 맥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라진 문장의 의미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더군다나 지식인인 석이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말이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 연재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생각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그러나 글을 안 읽어도 생각을 한다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생활을 위한 건데, 가령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오랜 경험에 의해 얻어진 방법을 책을 통하여 배울 것이요, 공장을 짓고 기관선을 만들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치겠는데 요즘 사람들,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과거 하던 시절의 글공부 목적밖에는 달리 생각을 안 하거든. 옛날식의 과거 같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 왜놈 치하에서 시험쳐서 고등문관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건 일본의 관리 아니겠나.”

석이는 얘기를 곁돌리면서 흥이를 관찰한다.(『주부생활』 1977. 6)

• 단행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데, 그러나 글을 안 읽어도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생활을 위한 거야. 가령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오랜 경험에 의해 얻어진 방법을 책을 통해서 배울 것이요, 공장을 짓고 기관선을 만들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치겠는데 요즘 사람들,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과거 하던 시절의 글공부 목적밖에는 달리 생각을 안 하거든.

석이는 얘기를 곁돌리면서 흥이를 관찰한다.(3부 1편 15장)

소설이 연재 형식으로 발표된 후 그것이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독자층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연재소설의 독자층은 그 발표지를 구독하는 계층으로 한정되지만, 단행본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행본 출간은 이렇듯 독자의 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독자 계층의 성격도 다양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단행본으로 출판하면 그것의 보존 기간은 상당히 길어진다. 이러한 단행본 출간이 갖는 의미를 작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옛날식의 과거 같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 왜놈 치하에서

시험쳐서 고등문관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건 일본의 관리 아니겠나.” 라는 문장은 작가가 생각할 때에 『주부생활』의 독자층에게는 보여주어도 괜찮은 문장이지만, 더 많은 독자층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장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문장의 내용은 박경리 작가의 항일의식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까닭은 일제 치하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층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독자를 의식한 작가의 자기 검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³⁾

고위층뿐만 아니라 농민 계층 혹은 일반 국민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수정도 발견된다. 다음 두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두 곳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서술자의 진술과 일본인 헌병의 대사가 조금 다르다. 특히 일본인 헌병의 대사는 상당히 자극적이다.

• 연재본

천인이 공노할 이같은 횡포는 식민지의 백성의 숙명이며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농민이기 탓으로 더욱 자심하게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헌병과 경찰의 앞잡이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각기 내용에 있어서 수효는 구구했으나 지리산에 의병이 있다는 것이며, 정보의 출처는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었다. 처음에는 군에서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비웃었다.

23) 박경리는 한국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는 좌익 활동 혐의로 투옥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경리는 이러한 남편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다. 『토지』 연재를 끝낸 후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말하였으며 유고시에 조금 남겼다. 남편의 이력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딸이 연좌제에 걸려 미국에 가지 못했을 때에는 절망적이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62~163쪽 참조.) 따라서 『토지』 연재를 끝내기 전 1970~80년대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독자를 의식한 자기 검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도둑놈이 몇 마리 있었겠지. 바보 천치 겁장자들이 강 건너 달아난 게 언제라구 의병? 배꼽 빠질 얘기, 조선놈의 새끼들, 그만한 근기가 있다면 나라 빼앗기지도 않았다구.”

그러나 비웃었다 하여, 유언비어로 간주했다 하여 불문에 부쳐버릴 그들은 아니었다. 은밀히 산 속의 동정을 살피고 나무꾼 사냥꾼으로 변장한 밀정들을 산 속에 투입했던 것이다. (『주부생활』 1978. 1)

• 단행본

천인이 공노할 이같은 횡포는 식민지 백성의 속명이라 할 수밖에 없고 제 나라 주권 아래서도 천시당해온 농민이기 탓으로 더욱 자심하게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헌병과 경찰의 앞잡이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각기 내용에 있어서 수효는 구구했으나 지리산에 의병이 있다는 것이며, 정보의 출처는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었다. 처음에는 군에서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비웃었다.

“도둑놈이 몇 마리 있었겠지. 바보 천치 겁장자들이 강 건너 달아난 게 언제라구 의병이야? 배꼽 빠질 얘기, 정보비가 아깝다.”

그러나 비웃었다 하여, 유언비어로 간주했다 하여 불문에 부쳐버릴 그들은 아니었다. 은밀히 산 속의 동정을 살피고 나무꾼 사냥꾼으로 변장한 밀정들을 산 속에 투입했던 것이다. (3부 2편 15장)

인용문의 연재본과 단행본을 비교해보면 연재본에서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농민”이라는 표현이 “제 나라 주권 아래서도 천시당해온 농민”으로 수정되었다. 농민 계층의 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또 “조선놈의 새끼들, 그만한 근기가 있다면 나라 빼앗기지도 않았다구.”라는 대사는 비록 일본 헌병의 말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원인을 우리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법한 부분이다.

이처럼 작가의 자기 검열로 보이는 수정은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작가가 수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정본에 반영하는 것이 옳바

른 것이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5. 나오는 말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장편소설의 경우 이본의 존재로 인해 문학연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본과 정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는 작품 분량에 따른 연구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현대소설 연구에서 원전비평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도 한 몫을 하였다. 본고는 모든 문학연구는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검토 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현대소설 『토지』를 대상으로 정본을 확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해 보았다.

가장 먼저 기본텍스트가 되는 저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토지』의 경우 단행본에서 작가가 아닌 출판사의 수정이 명백하게 발견되기도 하여, 연재본을 저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재본만을 저본으로 선정한다면, '기본텍스트의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연재본을 완성된 작품으로 보지 않고 단행본만을 저본으로 삼을 것인지, 연재본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연재되지 못한 부분만 단행본의 것을 저본으로 선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작품이 독자에게 처음 공개되는 시점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어 후자의 방법으로 저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 확정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기준은 실제 정보 확정에 적용하면서 때에 따라 조건부 세부 항목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 (1) 우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법은 현재의 표기법을 따른다. 단, 현재의 맞춤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 (2) 작가 고유의 독특한 의성어, 의태어 표현은 맞춤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대로 살려두도록 한다.
- (3) 저본에서 명백한 오류인 오타자가 발견되었을 때, 혹은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 판본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4) 연재본에서 사용한 일본어 번역 투 가운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수정하고자 한 부분은 그 의도를 존중하여 수정 후의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 (5) 연재본에 실려 있었으나 이후 단행본에서 누락된 문장은 되살려 놓는다.
- (6) 연재본의 문맥상 오류를 단행본에서 바로잡은 경우 단행본을 따른다.
- (7) 연재본에는 없었던 문장이 단행본에 실려 있을 경우 작가의 의도적인 수정이라면 단행본을 따르도록 한다.

이상의 기준 이외에 몇 가지 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기준 간의 충돌과 사투리의 표기, 작가의 자기 검열로 추정되는 수정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본의 확정에는 작가의 뜻이 중요하므로 작가가 적극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그것을 정본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반영이 애초에 작품을 발표할 당시 작가 의식이나 표현의 개성을 지워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선택’ 즉 ‘선본(善本)’의 결정은 그것을 확정하려는 연구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열린 의식도 필요하다. 물론 무분별한 정본의 남발은 작가나 독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 하나의 정본만이 존재하

여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연구자와 독자의 작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더불어 본고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정보확정에 필요한 기준은 차후의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경리, 『토지』, 문학사상사, 1975.
_____, 『토지』 지식산업사, 1979.
_____, 『토지』 삼성출판사, 1988,
_____, 『토지』, 솔출판사, 1994.
_____, 『토지』, 나남출판사, 2002.
『현대문학』, 1969. 9-1972. 9.
『문학사상』, 1972. 10-1975. 10.
『주부생활』, 1977. 1-1979. 12.
『독서생활』, 1977. 1-1977. 6.
『한국문학』, 1977. 6-1978. 1.
『마당』, 1981. 9- 1982. 7.
『정경문화』, 1983. 7-1983. 12.
『월간경향』, 1987. 8-1988. 5.
『문화일보』, 1992. 9. 1-1994. 8. 30.

2. 논문 및 단행본

- 김인균, 『『천변풍경』 정보화를 위한 국어학적 고찰』, 『우리말연구』 19집, 우리말학회, 2006, 325~356쪽.
김철 교주(校註), 『바로 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3.
박진영, 『한국근대 문학사 연구와 정본의 복원 출판이라는 과제』, 『인문과학』 94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235~258쪽.
이선영 편,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제3판, 삼지원, 1995.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37~168.
최유찬, 『『토지』 판본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7~84쪽.
_____, 『채만식 장편소설의 신문·잡지 연재본과 단행본 비교』, 『한국학연구』 제47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37~64쪽.
_____,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Abstract

Several Principles for Textual Criticism of Literature

: Focusing on the Pak Kyong-ni's "Toji"

Cho, Yun-A (Catholic Univ.) • Lee, Seung-Yoon (Incheon Univ.)

In case of long novels, many of them are published in newspapers or magazines in the form of serial publications, and then they are published as a single book. 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level of completion of a work becomes enhanced once those novels are published as a single book after going through this process; however, a single book is not always of a higher level of literary work than a serial novel.

Park Kyung-ni's "Toji" was published over a period of 25 years. It was published in a series while being moved to nine media, and it began to be published as a single book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eries. Also, no less than eight publishers published it as a single book.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uncommon.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premise that correct versions should be determined to solve problems incurred as novel work in series was published in complex and diverse books (several versions). We have intensively examined several issues which were regarded as dilemma among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termination of correct versions. The first one is the part revising the nonstandard language used in serial novel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book. Second one is the revised parts when book was published due to self-censorship of author after release as the serial novel.

Since the intention of author is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correct versions, it is natural to accept and reflect it in the correct versions if the author actively revised it. If such reflection deleted the personality of expression or sense of author when releasing the work originally, better selection should be made. It seems best to select the critical good version in a way to raise the personality and literary value of author in the situation when author is not alive.

240 대중서사연구 제20권 2호

(Key Words: "Toji", Serial publications, Single book, Correct Versions, sense of author, self-censorship)

Ⅰ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